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⑩ /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대불련 운동의 새로운 지평

산업화 시대, 질곡의 역사가 시작되다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최연은 1976년 대 불련 회장으로 학생들의 불교운동을 이끌었다. 1955년생인 그가 태어난 해에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됐다. 최연은 불교인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최연은 1960년대에 성장해 1970년대 대학생으로서 학생운동에 가담했고, 1980년대는 신군부 정권에 대항했다. 독재에 항거했던 그의 증언에는 '엄혹', '질곡'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최연은 파사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에 항거했다.

"아버지가 김천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잘 알다시피 정쟁 이후라, 재가 클 때에는 먹을 것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최연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여러 남매가 있는 가정의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개발이라는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는 또 다른 질곡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회고한다.

"1960년대는 사회에 질곡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사회가 산업화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인권 등이 많이 무시됐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위한 국가적 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단위가 해체되고, 또 마을 공동체들이 해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60~70년대 초였습니다."

개발과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또한 모순과 질곡이 따랐다. 60년대부터 산업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맞췄다. 그 때문에 최연은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물론 마을공동체까지 무너졌음을 아쉬워한다. 특히 미국이 원조한 옥수수농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교사의 언행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친의 공



(오른쪽) 불교사회연구원 최연 원장의 모습.

무원 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도 고교 때부터 학자금을 조달을 위해 중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를 시작했다고 털어놓는다.

"인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중3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7남매의 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최연은 과외를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불교 학생회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예반, 웅변,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불교학생회 활동은 중학교 때부터 한 것이지요."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⑧ - 등장인물 소개 4

어떻게 노래와 음악으로 중생을 교화했을까?

수많은 경전 속에서 천룡팔부 신장의 대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발군의 체력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신에도 능하며 예술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대개 오프닝에서 부처님의 위엄을 강조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의 비중으로 출연할 뿐,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본능은 감출 수 없는 법, 그들은 법회에 등장할 때 종종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최대한 살려서 마치 오페라나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장엄하고 여법한 무대를 만들어내곤 한다.

예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팔부신장들

요즘도 좋은 공연을 한 편 보려면 적지 않은 출혈을 해야 한다. 하물며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예술'을 아예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 설법을 하시는 자리에서는 이런 천계의 존재들이 앞 다퉈서 찾아와 꽃이며 춤, 소리

공양을 올렸다고 한다. 만약 중생들이 부처님의 설법과 함께 이런 음악을 접했다면 그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압도됐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음악을 비롯한 팔부신장들의 이런 재능 보시는 사람들이 설법 법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동해 신심이 솟구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음악과 무용 등의 예술은 매우 직접적으로 본능을 자극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중생교화에 있어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뵈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긴나라왕의 음악과 같은 최고의 작품을 무상(無償)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런 신비로운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법문을 들으러 왔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불법에 교화된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재능을 보시한 팔부신장 중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긴나라(緊那羅)이다.



긴나라 삽화=김영수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시했던 긴나라(緊那羅)

긴나라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인지 짐승인지 새인지 일정하지 않은 상상의 존재이다. 혹자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말의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그 형상도 일정한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성별은 모호하고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특징은 머리 위에 달린 한 개의 뿔이다.

이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불확실하지만 성격과 직업은 오히려 확실하다. 노래와 춤

을 좋아하는 긴나라는 제석천의 악신(樂神) 가운데 하나이다.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음악을 하는 천계의 악신(樂神)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대수긴나라왕소문경)에서 천관보살은 후세 사람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 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부처님께 묻는다.

"이 대수긴나라왕은 어떻게 거문고와 모한 노랫소리와 갖가지 음악소리로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긴나라의 음악이 자기만족을 위해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지라는 점이다. 즉, 한 마디 말조차 없더라도 오로지 예술(소리)로써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은 중생이 스스로 감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㉞ 용장사

경주 남산은 부처님 나라

경주 남산 중턱에 '용장사지(倂長寺址)'가 있다. 용장사는 신라인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장소다. 용장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태현 스님은 법상종의 인물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삼국유사>에는 "태현은 총해롭고 명철하며 정세하고 명민해 판단과 분별이 분명했다. 대계 상종(법상종)의 이치가 매우 그윽하고 깊어서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중략) 태현은 사되고 그릇된 것을 간청하고 그 심오한 것을 통달하여 그 이치를 분석했다. 그래서 후진들도 그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국의 학자들도 그것을 배워 자기들의 안목으로 삼았던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태현 스님의 법상종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은 한국의 법상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태현 스님이 용장사에서 주석했다면 용장사는 한국에 있어서 법상종의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 상으로도 법상종의 인물들이 염미륵(念彌勒)의 실천행



용장사지 삼륜대좌불

는 3층탑이라 생각될 만큼 특이한 원형(圓形)인데, 맨 윗 단에는 연꽃무늬를 새겨 놓았다. 화순운주사에서나 보이는 탑의 모양과 닮아 있는 대좌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여겨진다.

석불은 석불 자체의 사실적 표현이 작품의 격을 높여주며, 태현 스님의 활동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불상은 태현 스님의 설화와 관련이 있는 불상으로 여겨진다. 공중에 떠 있는 듯 한 높은 대좌에 앉아서 남산자락을 내려다보는 이 불상은 보살상인지 불상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오는 미륵상으로 보인다. 태현 스님이 미륵상을 들었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이 불상의 대좌가 마치 탑과 같아서 탑들의 풍속과도 연관 지어서 볼 수 있다.

용장사에는 법상종의 흔적 담겨 용장사 골짜기 석조여래좌상은 <삼국유사>에 미륵상으로 기록

을 수행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법상종 신앙의 흔적이 살아있는 사지라고 할 것이다.

현재 용장사지에는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倂長寺谷 石造如來坐像)'과 삼층석탑 마애여래 좌상이 남아있다. 석조여래좌상은 장육존상으로 머리 부분 없어지고 손과 몸체 일부가 남아 있다. 커다란 대좌에 비해서 불상은 작은 편이다. 1923년 봄 대좌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복구했는데 1932년 도굴된 것을 다시 복구했다고 한다.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은 양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으며, 옷자락이 대좌(臺座) 앞부분까지 흘러내리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자락을 봐도 화려함이 돋보인다. 일제당시에는 옷자락의 매듭 때문에 승려형식의 조각으로 여기기도 했고, 고유섭 선생은 미륵보살상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불상의 머리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무어라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 불상의 대좌는 자연기단 위에 있

산등성이의 높은 대지는 마치 도솔정토같이 느껴진다. 경주 남산을 불국토로 만든 신라인들의 상상력이 태현 스님을 통해 도솔정토를 구현한 것이 아닐까? 도솔전에 있는 미륵을 향한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경주 남산 깊은 골짜기를 지난 산등성이에 아름다운 미륵정토 세계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태현 스님이 매일 미륵상 주위를 돌고 미륵상도 태현 스님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기록에서 살아 있는 미륵의 자애로움이 오늘날 남산에서 느껴진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 중 합 반 : 10인 이내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 의 : 중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예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기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